

챗GPT와 미래교육 세미나

정다연 기자 ekdusgood@khu.ac.kr

【서울】 '챗GPT와 미래 교육'을 주제로 한 교수 세미나가 지난 4월 28일 서울캠퍼스 오비스홀에서 열렸다.

세미나 발표는 이경전(경영학과) 교수와 에세이핏에이아이 김광일 대표가 진행했다. 이 교수는 '인공지능 기술과 미래 교육'을 중심으로 챗GPT의 등장과 우리에게 필요한 교육을 다뤘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활용 학습 방법 교육 ▲인공지능 활용 고도화 사회 윤리 및 정책 교육 등을 소개했다.

이번 학기 중간고사를 '오픈 챗GPT 방식'으로 진행한 이 교수는 실제 수업에서 챗GPT를 활용했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 4월 이 교수는 현재의 챗GPT가 이미지를 인식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중간고사 문제에 이미지를 제시했다. 이미지가 제시되면 학생들이 챗GPT를 활용하는 데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견했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몇몇 학생들이 해당 이미지를 글로 풀어 챗GPT에게 질문한 것이다. 이 교수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다"며 "이미지를 말로 깎집어낼 수 있는 것도 능력이다"고 밝혔다.

또한 이 교수는 인공지능의 고도화에 따른 사회 윤리 정책의 변화를 제시했다. 이 교수는 '인공



지난달 28일 '챗GPT와 미래교육' 교수 세미나가 서울캠퍼스 오비스홀에서 개최됐다.

(사진=정다연 기자)

지능의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인지를 허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후 AI의 대답 수위가 다른 InstructGPT, TruthGPT, 탈옥의 예시를 보여줬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AI 성능은 매우 좋아졌지만, 여전히 실수하고 앞으로 영원히 실수한다"며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에게, AI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김 대표는 챗GPT가 가져온 변화를 짚으며 ▲대학 수업에서 GPT 활용 방법 ▲학술 연구에서 GPT 활용 방법 등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챗GPT의 등장으로 각종 업계는 정체성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는 교

육 현장에도 파장을 미쳤다"고 전했다. 덧붙여 김 대표는 "지식수준의 향상은 챗GPT로 도움을 받기에 필요 없을 수 있다"며 챗GPT가 학생들에게 보조자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전망을 전했다.

다음으로 챗GPT 활용 방안에 대한 집중 토론을 하며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예술 교육에서 챗GPT에 대한 활용 방안을 질의한 김영미(무용학부) 교수는 "무용은 몸을 움직이고 생각해 창작하는 전공이다"며 "어떻게 하면 챗GPT를 활용해 좋은 교육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 대표는 무용도 몸의 언어이기에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무용의 언어를 텍스트로 바꿔 표현하면 된다"며 "문

화예술이 챗GPT와 거리가 있다는 생각보다, 결국은 숫자 계산하는 식으로 가볍게 받아들이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후 인터뷰에서 김 교수는 "예술과 기술을 융합해 활용할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무용 동작을 극대화하는데, AI를 도구로써 활용해 무용의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남겼다.

해당 세미나를 준비한 교수학습개발원 황조혜 원장은 "이번 교수세미나를 통해 챗GPT를 포함한 다양한 AI 틀을 이해하고 수업에 활용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챗GPT로 AI 프롬프트를 작성하거나 소설 만들기 등의 내용으로 실습을 진행하려 한다"고 앞으로 계획을 밝혔다.

국제캠행 설국버스 1회 증차

정혜원 기자 jhw00070@khu.ac.kr

18시에 출발하는 국제캠퍼스(국제캠) 행 '설국버스'가 오는 5월 8일부터 운행될 예정이다.

지난 3월 개강을 앞두고 변경된 2023학년도 1학기 셔틀버스 운행 시간표에 따르면, 양 캠퍼스를 오가는 셔틀버스인 설국버스는 ▲7:20 ▲10:00 ▲13:30 ▲16:40에 서울캠퍼스(서울캠) 행은 사색의 광장 앞에서, 국제캠 행은 온실 앞에서 각각 출발했다. 예산상의 이유로 지난 학기와 달리 캠퍼스별로 하루 4회만 운영됐다.

그러나 오는 8일부터는 18시에 출발하는 국제캠행 설국버스가 새롭게 배치된다. 총무관리처 총무팀은 "3~4월에 학생들의 불만 사항을 알게 됐다"며 "예산 문제로 준비 기간을 거치느라 오는 8일부터 증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캠에서 무역학을 다전공하는 윤정은(스페인어학 2021) 씨는 "수업이 늦게 끝나는 경우 설국버스가 없어 광역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2시간 반이라는 시간과 금액이 부담됐다"며 "서울캠과 국제캠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여러모로 장점이 많을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설국버스의 결제방식이 달라졌다. 설국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페이코 결제 시스템으로 모바일 승차권을 구매해야 한다.

행복을 여는 동대문 명사특강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2023 동대문 탄소중립 미래도시



이회성 (IPCC 의장)

IPCC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협의체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現 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에너지환경정책 석좌교수
前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2019년 타임 주간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선정

접수기간
2023. 5. 9.(화) ~ 5. 30.(화)

일시 2023. 5. 31.(수) 15:00

장소 동대문구청 2층 다목적강당

대상 동대문 구민 누구나

접수 전화 또는 동대문구 누리집

문의 교육지원과 02-2127-4978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탄소중립 시대를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찰한다



신청 바로가기

